

‘지방대 위기’ 부른 ‘지방대 육성’

2017 입학 정원 감축비율 광주 8.1%·전남 8.5%

정부 약속 말 뿐...서울 되레 126명 늘어 집중 심화

최근 4년 간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비율이 서울 지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대학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대 육성이 아닌, 축소를 통한 지방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일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의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광주지역 17개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20개 대학의 감축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정원 대비 감축비율로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17.1%), 경남(9.1%), 경북(8.3%) 다음으로 높다.

반면, 서울의 경우 51개 대학에서 1023명이 줄어 정원 대비 감축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학년도와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이 기간 입학정원이 오히려 126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약속했음에도 지방대 위주의 정원 감축이 진행되는 등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지방대 축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전남에서는 4년제 1곳과 전문대 4곳 등 5곳이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4년제인 세한대와 전문대인 목포과학대, 한영대는 D등급을 받아 2016학년도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을 받게 됐고 전문대인 광양보건대와 동아인재대는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재정지원 사업이 전면 차단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회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교육혁신·인재양성 손 잡았다

공동정책·상생 협약

광주·전남 교육청이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회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

교육감은 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협약을 갖고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사진> 두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체류형 학생교육 교류 및 도·농 교육 교류 협력 ▲

생명존중, 생태·환경교육 교류 ▲교직원 교환근무 등 교육 행정 상호 협력 ▲광주 빛고을혁신학교와 전남 무지개학교 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진로·진학·취업 상호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장회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에 희망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도 “우리 아이들이 호남의 인재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

광주 2만51명·전남 1만7648명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2일 오전 8시40분부터 광주·전남 176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 2121개 고등학교와 349개 학원에서 치러진다. 9월 모의평가는 수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본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여줘 수험생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다, 재수생 대부분이 응시해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치러지는 모의 평가에 광주 2만51명(재학생 1만9976명), 전남 1만7648명(재학생 1만7512명) 등 전국 수험생 62만408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9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A형 광주 10142명·전남 8832명 등 전국 28만6658명 ▲국어 B형 광주 9908명·전남 8816명 등 전국 33만6605명 ▲수학 A형 광주 1만4199명·전남 1만1659명 등 42만

5156명 ▲수학 B형 광주 5819명·전남 5979명 등 19만1811명 ▲영어 광주 19996명·전남 1만7627명 등 62만2198명 ▲사회탐구 광주 1만338명·전남 9187명 등 35만3723명 ▲과학탐구 광주 9197명·전남 7943명 등 24만9699명 ▲직업탐구 광주 511명·전남 497명 등 1만8524명 ▲제2외국어 광주 2135명·전남 925명 등 5만7353명이다. 결과는 오는 24일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성적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가 표기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아시아나 추석 항공예약 8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추석 연휴기간 투입하는 국내선 임시 항공편에 대한 예약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4~29일 김포~광주, 김포~제주, 인천~제주 등 3개 노선에 26편을 투입, 총 4565석을 공급한다. 아시아나항공 임시편 예약은 8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flyasiana.com)와 예약센터(1588-8000)를 통해 접수한다. 1인당 최대 4석까지 예약할 수 있다. 대한항공도 2일부터 김포~제주, 부산~제주, 김포~부산 등 3개 노선에 23편의 임시편을 투입, 3219석을 공급하지만, 광주 노선은 배정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무 06:05
해짐 18:59

달무 21:24
달짐 09:46

우산 챙기세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 5~30mm.

◇지역별 날씨 (℃)

광주	21/27	보	성	호리고	비	18/26
목포	21/26	순	천	호리고	가	비 22/27
여수	22/26	영	광	호리고	가	비 20/26
나주	20/27	진	도	호리고	가	비 20/27
완도	20/26	전	주	호리고	가	비 21/28
구례	20/27	곤	산	호리고	가	비 20/27
강진	19/26	남	원	호리고	가	비 19/26
해남	19/27	흑	산	호리고	가	비 21/25
장성	19/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먼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동~남동 0.5~1.0
서부 먼바다(동)	서~북서 1.0~1.5	동~남동 1.0~1.5
면바다(서)	서~북서 1.0~1.5	남서~서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35 17:00	09:40 21:59
여수	11:29 23:46	05:07 17:23

◇주간 날씨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20/28	20/30	21/26	20/28	19/27	18/27	19/27

◇생활지수

	경고
	10
	20

광주·전남 콩팥병 환자 70% 고혈압·당뇨 합병증 고통

전남대병원 최근 5년 분석

■연령별 만성콩팥병 환자 <단위: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0.4	1.6	5	10	17	22	29	15

광주·전남지역 만성 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앓고 있으며, 이중 2명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콩팥병 환자 중 고혈압 환자는 55%, 당뇨 환자는 41%였으며 고혈압·당뇨 모두 앓고 있는 경우도 22%인 것으로 조사돼 콩팥병이 고혈압·당뇨와 밀접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1일 전남대병원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만성 콩팥병 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 5673명 가운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는 4098명으로 72%를 차지했다.

환자 수는 2011년 881명에서 2014년 1335명으로 3년 새 52%가 증가했다.

만성 콩팥병과 함께 고혈압만 있는 환자는 3140명으로 55%에 달했고, 만성 콩팥병과 당뇨를 같이 앓는 환자도 2359명(41%)이나 됐다. 만성 콩팥병, 고혈압, 당뇨를 모두 앓는 환자는 1262명(22%)이었다.

만성 콩팥병을 연령별로 보면 70대

1654명(29%), 60대 1241명(22%), 50대 972명(17%) 등으로 집계돼 높은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3574명(63%)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 감소, 소변 검사나 콩팥 영상의 이상 소견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병이 상당히 진행된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말기 신부전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전남대병원은 급성 신손상이 발생한 중증환자 치료법인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최근 5년간 총 8800건을 시행, 전국 삼급종합병원의 최상위권에 달하는 시행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상품안내

단위 : 만원(VAT별도)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충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

직원모집

- 골프 유경험자 우대
- 나이 성별 제한없음
- 골프장 선불회원권 컨설팅
- 근무지 : 광주/순천